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어로!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사차비에 힘을 집중

통천별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빈틈없이 작전할 때

통천군 신암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통천군 신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에 있어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농장에서는 이미 종자준비, 물길가시기, 농기계수리정비, 모판차제준비를 끝냈으며 거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있어 실어내기까지 마지막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성파의 비결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농사차비문제를 놓고 농장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자면 뛰니뛰니해도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부침땅의 지역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논면적이 많은 농장의 실정에 맞게 물길가시기를 다그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의 생각은 종자문제에 가있었다.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마련하는것이 올해농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중심고리라고 본 것이다.

관리위원장은 협의회참가자들에게

들에게 당의 뜻대로 올해농사를 잘 짓려면 우리 일군들이 농사차비작전을 바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농장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기어이 보답하자면 농사차비부터 빈틈없이 해놓아야 합니다.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는 열쇠는 종자준비를 잘해놓는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농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지난해날씨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하였다. 가을철에 들어서면서는 비가 내리고 해빙철이 떨어져 농작물의 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지나해농사과정을 돌이켜본 일군들은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마련하는것이 농사차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중심고리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리위원장의 제기는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많은 면적에 심을수 있는 종자를 마련하였다.

농기계수리를 짧은 기간에 끝낸것도 농장일군들이 절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농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일군들의 머리속에는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다. 지난해날씨는 농사를 짓는데 매우 불리하였다.

가을철에 들어서면서는 비가 내리고 해빙철이 떨어져 농작물의 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부침땅의 지역과 물, 비료보조장치를 비롯하여 농사조건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떤 종자를 심었는가에 따라 그 결실은 달랐던 것이다.

지나해농사과정을 돌이켜본 일군들은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마련하는것이 농사차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중심고리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리위원장의 제기는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랙토르수리정비가 한창인 기계화작업반에 내려갔다. 그런데 예상외로 작업장이 쪼그라들었다. 실례를 료해해보니 부속품이 제때에 보장되지 못하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사실 작업반에서는 틈틈히 꾸러진 수리기에 의지해서 적지 않은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많은 농기계들을 수리함으로써 농사차비일정계획을 앞

당기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거름실어내는 물은 앞으로 진행될 논갈이를 성과적으로 하자면 트랙토르수리를 잘해야 하였다. 일군들은 절린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당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대책을 세웠다. 결과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트랙토르수리를 끝낼수 있었고 거름실어내기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것 일군들의 경험은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작전을 빈틈없이 할 때 농사차비에 좋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색하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물길을 밟아보던 농장일군들은 제5작업반과 제7작업반의 물길을 확장하면 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농사량은 방대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비롯하여 농사차비를 하면서 과연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해결할수 있겠는가고 은근히 걱정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려면 물길확장공사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보고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시켰다.

공사장은 적게 들것을, 공사장은 적게 들것을, 단계를 물길확장공사에서부터 높이 발휘하였다. 짧은 기간에 물길확장공사를 끝낼 목표를 내세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열의에 맞게 노력노동을 벌

었이 하였다. 제대군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절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공사장에는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었다. 땅이 명명 얼어붙었지만 농장원들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정대와 합마로 언 땅을 파헤치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은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를 잘 지을 줄라는 열의로 끓어번졌다.

그러던 어느날 일군들은 땅이 언 조건에 맞게 필요한 공구만 더 보강하면 얼마든지 공사기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농장원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찾게 된 일군들은 수리반에서 공구를 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올해에 기어이 통년로작기리를 높이 쌓을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 수리반원들은 서로의 창조적

제를 합쳐가며 많은 공구를 생산하여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그러하여 이들은 짧은 기간에 1단계 물길확장공사를 끝냄으로써 적지 않은 면적의 포전에 물을 보다 넉넉히 댈수 있게 하였다.

농장에서는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2단계 물길확장공사를 시작하였다. 짧은 기간에 물길확장공사를 끝낼 목표를 내세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열의에 맞게 노력노동을 벌

려하였다.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면적에 구운흙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댈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대속속에 들어가 귀를 기울이면 일군들은 가정들에서도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을 앞세우며 흙을 구워내면 포전에 더 많이 댈수 있다는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치사업

두벌농사포전에 라오르는 혁신의 불길

통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

영광의 땅 통천군 장산협동농장의 두벌농사포전에서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발구름소리가 세차게 울리고있다. 두벌농사준비를 잘하여 올해농사의 돌파구를 열려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이 포전마다에 펼쳐져 찾아오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벌농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집약농법입니다.》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 두벌농사면적을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이고 정보당 수확 5t의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낼 목표를 세웠다.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이렇듯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제7작업반의 포전에서 찾을수

있었다. 지난해 6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찾으셨던 이 작업반 포전에서는 농장원들이 아침부터 거름실어내기를 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는 올해에 두벌농사면적을 더욱 늘여 알곡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우리와 만난 제7작업반원들의 격정에 넘친 말이였다. 바로 그것이었다. 선군혁명

병동의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농장에 찾아오시어 뜨거운 은쟁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알곡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작업반원들모두가 열정에 넘쳐 두벌농사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모든 작업반 농장원들의 가슴속에도 이런 열정이 맥박치고있었다.

농장원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이 합쳐져 드넓은 협동벌은 용암마냥 세차게 끓어번졌다. 물길을 정리하면서 나온 흙을 리용하여 땅의 지역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전투장면 보아도 그렇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도 수십t의 흙을 파내어 포전에 낸 우리 농장원들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흙이면 두벌농사포전의 지역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습니다.》

신심에 넘친 농장일군의 말이였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투장면은 더욱 화려하였다. 새차게 나뉘는 것은 기발물, 질풍을 지고 달리는 일군들과 농장원들, 목도도 걸자마자 흙을 나르는 청년들...

전투의 양상에 제대군인들이었다. 혁명전선일군이 온 벌에 차달렸다. 제대군인들에게 뒤질새라 이약하게 일손을 놀

리는 녀성농장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흙을 두벌농사포전에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장성대곡수리의 그늘을 앞당겨 오기 위해 오늘의 분과 초를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는 장산리사람들의 혁명적열정이 남은 자랑스런 열매였다.

거름실어내기에서도 련일 혁신이 일어났다. 트랙토르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는 가운데 거름기름을 가득 채워 두벌농사포전에

《모든 일군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이라고 한 공물사설의 내용을 자자구구 새겨머지 지난해농사정형을 다시 분석해보면 농장일군들은 제8작업반의 농사에 주목을 돌리었다. 한것은 이 작업반에서 같은 조건에서 농장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지었기때문이었다. 따져보니 모를 잘 키운데 중요한 성과의 비결이 있었다.

통천군 통송협동농장의 농사차비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거름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실어내기가 계속단계에 들어섰으며 모판차제들도 넉넉히 확보되었다. 이 성과는 일군들이 농장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가지고 농사차비를 완강하게 내밀고있는것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매사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이라고 한 공물사설의 내용을 자자구구 새겨머지 지난해농사정형을 다시 분석해보면 농장일군들은 제8작업반의 농사에 주목을 돌리었다. 한것은 이 작업반에서 같은 조건에서 농장적으로 농사를 제일 잘 지었기때문이었다. 따져보니 모를 잘 키운데 중요한 성과의 비결이 있었다.

통천군 통송협동농장에서

모를 실하게 키워내려면 모판차제부터 빈틈없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일군들은 이 작업반의 농사정형을 료해해보았다. 모판차제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다른 작업반보다 튼튼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가지고

통천군 통송협동농장에서

모를 실하게 키워내려면 모판차제부터 빈틈없이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일군들은 이 작업반의 농사정형을 료해해보았다. 모판차제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다른 작업반보다 튼튼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속있게 조직하고 내민것도 경험적이다. 지난해에 많은 비가 내린 불리한 일기상태가 농작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 일군들은 올해에는 구운흙을 눈에 많이 내는것이 풍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그 방도를 토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흙구운 흙을 건설하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강방이뿌리를 태우면서 흙을 구워내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어느것이나 다 좋은 안들이었다. 그러나 논면적이 많은 조건에서 이런 방법만으로는

이 경제적으로 벌어졌다. 활장대갈이 쌓이기 시작하자 일군들은 담당한 단위들에 내려가 그 정형을 알아보고 근기있게 밭고나갈수록 때밀어주었다. 결과 농장적으로 1월말까지 활장대를 비롯한 모판차제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성과가 기록되었다.

수십년을 학습강사로

김정숙사범대학 강좌장 조희상동무

지난해 5월 김정숙사범대학 강좌장이며 학습강사인 조희상동무는 자기 헌성에 조지록 바라던 영광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자자거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날 아버지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김정숙사범대학은 창립후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넓고살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그 외에는 그는 2600여 명의 학습회에 출연하여 배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였다.

조희상동무는 무엇보다도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가 될 결심을 안고 우리들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다 바치였다. 그리고 수많은 해설담화자료와 참고서들을 집필하였다. 그가 학습강사활동에 투신한 1만2900여건의 교양자료들 가운데는 배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을 보여주는 자료들로부터 혁명영웅, 계급교양에 도움을 주는 생동한 자료들과 경제지식,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 국제정세자료 등 없는것이 없었다.

오늘도 조희상동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귀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받아안던 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곤 한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예지, 탁월한 사상리론적 업적은 조희상동무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그는 무한한 각성도를 포착을 읽고 또 읽었다. 그때 중앙에서 진행되는 강습에 참가하였던 그는 깊은 밤 려면방에서 그리고 달리는 열차 안에서 로작해설제강에 밑줄을 그어가며 로작의 진수와

사상, 내용들을 심장깊이 새겨넣었다.

해설강에 도착하는 즉시 대학강당에서 로작해설강의를 마친 그는 그로크 대속속에 들어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에 대해 적극 해설선전하였다. 손에서 가방을 놓을 사이없이 이어지는 출강강에서 집진과 로로조 조희상동무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침상에 누워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원리와 로작해설제강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분초를 쪼개가며 강의안과 교재,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강의에 출연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학습하고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속에 피어나는 김정일화는 영원불멸하리

김정일화 만발한 2월은 만민칭송의 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위대한 시대사상의 조국으로,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릴수 있다.》

지금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이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수많은 나라 진보적인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축전에서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의 국장 배민우, 부국장 김승진, 부원 리춘일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제 15차 김정일화축전 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번 축전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 알고싶다.

국장: 어버이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1997년 제 1차축전이 시작된 때로부터 해마다 빠짐없이 진행되어 올해 15번째의 년회를 새기는 김정일화축전은 오늘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위인칭송의 축전대모로서 그 규모와 성격, 내용과 형식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훌륭한 꽃축전으로 되고있다.

제 1차축전에서 800여명의 김정일화 축출된 때로부터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 이번 축전에서는 수만상의 불멸의 꽃이 전위에서 축전사상 가장 큰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규모를 기록하고있다. 제 1차 축전이 진행된 때로부터 이번 축전까지 축출된 불멸의 꽃은 무려 24만여대에 달한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김정일화 만발한 2월은 만민칭송의 봄》이다. 여기에는 조선의 영원한 봄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경모의 마음이 뜨겁게 반영되어있다.

올해의 축전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이다. 특히 이번 축전은 2012년을 향해 앞둔 역사적시기에 열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리상을 기어이 실현하여 이 땅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천만민들의 이 신념과 의지를 축전을 통하여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기자: 올해의 강추위는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추웠는데 모든 전시대대에 축출된 불멸의 꽃들은 어느때같이 더 훌륭하게 피었다고 생각된다.

부국장: 그렇다. 사실 올해 강추위를 두고 우리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어느 전위에서나 불멸의 꽃이 지난

시기보다 더 활짝 피워 축전장을 황홀하게 장식하였다. 소나무의 푸름은 눈속에서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훌륭한 현실을 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으며 김정일화는 만민의 심장속에 피어나는 불멸의 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지난 기간 불멸의 꽃배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안아온 결과이기도 하다. 15년간 각 도시, 시, 군들과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은 김일성화김정일화운동의 열매를 실컷 맛보았으며 올해가 불멸의 꽃을 재배하는 과정에 좋은 경험과 성과들이 많이 창조되었다. 돌이켜보면 그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불멸의 꽃배에는 의욕이 넘쳐나고 있다. 불멸의 꽃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단사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기자: 뜨거운 그 마을들에 반물러 하얀기가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들이어서 그렇듯 숨막하고 아름답게 안겨오는것이 아니겠는가. 불멸의 꽃들을 황홀경을 펼친 전시대대에 명도자와 인민이 한바탕을 띄워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질풍같이 내달

리는 일심단결된 조선의 참모습이 비껴있다고 생각한다.

부원: 정녕 그렇다. 불멸의 꽃 마다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 다함없는 충정이 깃들여있다.

《김정일화를 보면 마음은 더없이 든든해진다.》고 하면서 언제나 김정일화키우기에 심장을 바치며 모든 종업원들을 앞장에서 이끌고있는 조선혁명박물관 대외문화협력위원회의 책임일군들, 불멸의 꽃배에 필요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충정을 바친 화학공업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며 태양의 꽃과 더불어 바쳐가는 불타는 심장이 없으면 어떤 사업성과도 생각할수 없다는 신념으로 김정일화배에 사랑과 열정을 바쳐간 도시경영성 책임일군들과 정부원들, 대동지도국 일군들...

제 1차부터 우리까지 해마다 축전에 참가한 개별적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또 얼마나 인지 모른다. 10년이란 기간이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10년, 100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충정의 모습을 본다.

기자: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 단체, 인사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고싶다.

부원: 이번 축전에는 총련의 제일동포들과 재중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많은 국제연대단체들과 인사들, 화교들이 훌륭한 불멸의 꽃들이 수 많이 전시되었다. 이것은 김정일화축전이 날이 갈수록 세계적인 관심속에 성대히 열리고있다는 증시로 된다.

세계도처에서 김정일화배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지난 15년간 여러 나라들에 불멸의 꽃배기자들이 꾸러지고 정세, 사회적, 개별적인 사들속에서 불멸의 꽃배 열풍이 높아지는 속에 현재 김정일화가 보급된 나라수는 70여개가 훨씬 넘는다. 참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우리 김정일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행부의 상징이다.

기자: 지금 성대히 진행되고 있는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은 참으로 우리 장군님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는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알리게 하고있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다스릴 상징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따라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김정일화축전을 만방에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영화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 장병들

철선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축원의 꽃바다가 펼쳐진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장에 붉은기를 더욱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인들의 열성의 신념이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며 가장 조직화된 전투대오입니다.》

참관자들이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전시대 앞에서 오레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것은 전진된 꽃의 아름다움때문만이 아니다.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불멸의 꽃송이마다 애력처럼 어려웠던 이 부대 군인들의 불멸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는다.

부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600여명의 불멸의 꽃으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최고사령관기를 형성하고 백두산일교와 함경도 평양을 세세한 조각으로 부각

꽃축전

시커잡으로써 2월의 꽃축전장을 두드러지게 장식하였다. 전시대의 향연에 형성된 무적필승의 보검인 혁명의 총대와 《결사옹위》라는 뚜렷한 글발, 수십구루의 참대와 전사 무들은 수형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성세, 방패가 될 부대장병들의 역적같은 신념을 잘 보여주고있다.

한상한상의 불멸의 꽃에서, 하나하나의 무각장소에서 수형결사옹위로 총탄된 우리 군인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울려나오는듯싶다.

출품된 600여명의 크고 아름다운 불멸의 꽃들마다에 어린 군인들의 정성은 그 얼마나 열렬하고 지극한것인가.

부대장병들에게 있어서 김정일화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었다. 하기에 그들은 김정일화배에 티끌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부대책임일군들은 매일과 같이 온실에 찾아가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과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었으며 부대안의 모든 장병들이 축전준비사업에 순결한 마음을 바쳤다.

군관 리봉호, 차혁, 온실관리원 현정숙, 황희희, 계성경 등무들이 흘러는 헌신의 발방

영원불멸하리

울도 전시대는 전하고있었다. 김정일화를 키우는데 필요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지세운 겨울방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불멸의 꽃배를 위한 과학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바쳐온 무수한 탐구의 밤들은 또 얼마나 이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대의 온실에 부대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세계가 아름답게 비쳐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뿌리내리고 싹도 꽃피는 나날들은 그대로 부대장병들의 가슴속에 총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갈 철성의 맹세가 더욱 굳게 자리잡은 나날이기도 하였다.

무심히 볼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게 대한 부대장병들의 무한한 충실성에 역센 뿌리를 내리고 훌륭하게 피어난 붉고붉은 김정일화에서 그로록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 아니라, 참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의 김정일화전시대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대로 결사옹위해가려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절대부리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본사기자 전철호

본사기자 정영화



꽃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은 근로자들 -내 각사 무국전시대에서-

《세계에 들도 없는 특색있는 꽃축전》

제 15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본 세계의 수많은 벗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명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에 대한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의 한 회사성원은 《김정일화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 보는게 처음이다. 위인의 꽃바다는것이 대번에 알린다. 그리고 꽃을 키운 사람들의 마음이 꽃을 더 아름답게 하는것 같다. 로씨야에 가서 김정일화를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이 불멸의 꽃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전시대마다 펼쳐진 김정일화축전장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명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에 대한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의 한 회사성원은 《김정일화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직접 보는게 처음이다. 위인의 꽃바다는것이 대번에 알린다. 그리고 꽃을 키운 사람들의 마음이 꽃을 더 아름답게 하는것 같다. 로씨야에 가서 김정일화를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이 불멸의 꽃에

본사기자

전시대가 전하는 사연

체육성에서

금메달로 내 조국을 빛내어 나갈 선군시대 체육인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불멸의 꽃송이마다에 비껴있는 체육성전시대.

특색있는것은 전시대의 명도에 형성한 축구강국, 체육강국이라는 현실있는 글밭이다.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빛내기 위한 비약의 열풍을 앞장에서 이끌고 가는 우리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가 이 글밭들에 역력히 여쭙고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5번째로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을 명실공히 위인칭송의 꽃축전으로 빛내기 위해 총이송이마다에 뜨거운 지성과 노력을 기울여 가장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들을 안고 남다른 축전정신으로 달려온 체육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성의 책임일군들은 온실에 자주 내려가 김정일화배정원을 알아보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필요관리원들은 추운 날씨조건에서도 불멸의 꽃을 하나와 같이 실하게 키워 꽃축전장에 내놓기 위

해 여러달동안 칙지도 있고 김정일화배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쳤다.

진정 흠모의 꽃, 신념의 꽃을 심장에 간직한 그 가슴들에서 아찌 금메달이 빛나지 않을수 있었다.

절세의 위인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정일화를 영원히 붉게 피워갈 선민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열정의 산물에서이것이 불수록 인상같은 전시대이다.

대성지도국에서

우려 지도국이 이번 꽃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비결을 놓고 말할 때 당의 과학기술도시 사상을 불멸의 꽃배에서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 온실종업원들의 진지한 일본새를 매우 높이 생각할수 있다.

이것은 각계종 참관자들로 흥성이든 대성지도국전시대에서 우리와 만난 지도국일군인 신명경무의 말이다.

김정일화를 원종특색성이 살아나게 과학기술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불같은 열정을 바치겠다는 김시웅, 최정애동무들.

건강장수에 좋은 비타민 C

최근에 비타민 C의 약리작용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비타민 C는 여러가지 위장병 치료에 널리 쓰인다. 체내에서는 비타민 C 부족증이 나타나며 특히 무산통증, 두통, 근육통, 관절염, 당뇨병, 폐혈증과 여러 가지 피부병치로 등에 널리 쓰인다.

또한 여러가지 혈청성질병과 장티브스, 저리 그리고 폐결핵, 골관절결핵을 비롯한 만성감염증치로에도 쓰인다.

비타민 C는 식물성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C는 콩나물, 시금치, 가무베추, 감자, 사과 등에 가장 많다. 김치와 김치물에도

아름답고 더 황홀하게 피운 김정일화로 빛나게 장식할 일년에 넘쳐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고 성의있는 지성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지도국과 아레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접할 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군한 이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꽃배를 세로로 꾸민 과학기술적대우에 울려세우기 위한 열정은 백베로 커졌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조직하는 강습에도 적극 참가하여 재기술수준을 높이고 여러 단위를 앞선 경쟁력으로 따라부는 한편 온실종업원들이 즐겨찾은 곳이 바로 인민대학습당이었다.

이들은 인민대학습당에서 김정일화배와 관련한 여러가지 도수들의 열심히 워면서 자기 도시의 실정에 맞게 꽃의 원종특색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도 부단히 탐구도입함으로 불멸의 꽃 만발한 훌륭한 전시대를 펼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

우리 인민들이 오랜 역사적기간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문화유산가운데는 탈도 있다.

탈은 종이나 나무, 박 등을 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꾸며서 얼굴 등에 쓰는 물건을 말한다. 탈은 사냥이나 격투투쟁의 싸움 등 원시생활의 로동생활과 공동체생활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고구려의 고구려왕릉벽화에서 인물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이 형성된것과 백제의 탈이 예술가가 인본에 고구려의 탈을 보급한 사실, 발해의 상경천후부유에서 탈춤을 형성한 청동조형품이 발굴된 사실 등은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

약을 먹는에서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약을 먹는 습관이 있다. 일부 약들은 70℃이상의 뜨거운 물로 먹으면 치료효과를 볼수 없다.

소화제나 비리안, 기침약이 작용을 하는 단분류약들이 그렇다. 소화제를 먹는 습관이나 트립신 등은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 성질이 변한다.

또한 비리안제제의 약들 특히 비리안 A, B, C는 뜨거운 물로 먹으면 불완전한 상태로 되면서 그 약효가 떨어진다. 당분이 들어간 기침약의 끈

적근한 성분은 염증이 생긴 부위에 닿아 기침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이러한 기침약이 약을 뜨거운 물과 함께 먹으면 끈적끈적한 액성분이 희석되어 치료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면역력을 높여주면서도 병에방 기능이 좋은 소아마비백신이나 젓산마비균이 들어있는 활성균류의 약들도 뜨거운 물로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열제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과 함께 먹어야 약효가 더욱 좋다.

본사기자

평양에서 공연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2.8비료련합기업소의 종업원예술소조공연이 18일부터 인민문화관에서 진행되고있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내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출연자들은 로동계급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하여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민족을 드린 기쁨을 안고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펼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 예술소조 공연의 한 장면

로씨야 방문 무역상일행 출발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로씨야를 방문하

는 리용남무역상과 일행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오후 7시 무역상 부상과 알렉세이 유진니 주조로씨야를 방문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 동맹대표단 귀국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핀란드공산주의 동맹대표단이 19일 귀국하였다.

제 20차 백두산상국제 회거축전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 선수들 귀국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5번째로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을 명실공히 위인칭송의 꽃축전으로 빛내기 위해 총이송이마다에 뜨거운 지성과 노력을 기울여 가장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들을 안고 남다른 축전정신으로 달려온 체육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성의 책임일군들은 온실에 자주 내려가 김정일화배정원을 알아보고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필요관리원들은 추운 날씨조건에서도 불멸의 꽃을 하나와 같이 실하게 키워 꽃축전장에 내놓기 위

해 여러달동안 칙지도 있고 김정일화배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쳤다.

진정 흠모의 꽃, 신념의 꽃을 심장에 간직한 그 가슴들에서 아찌 금메달이 빛나지 않을수 있었다.

절세의 위인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김정일화를 영원히 붉게 피워갈 선민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열정의 산물에서이것이 불수록 인상같은 전시대이다.

대성지도국에서

우려 지도국이 이번 꽃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비결을 놓고 말할 때 당의 과학기술도시 사상을 불멸의 꽃배에서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 온실종업원들의 진지한 일본새를 매우 높이 생각할수 있다.

이것은 각계종 참관자들로 흥성이든 대성지도국전시대에서 우리와 만난 지도국일군인 신명경무의 말이다.

김정일화를 원종특색성이 살아나게 과학기술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불같은 열정을 바치겠다는 김시웅, 최정애동무들.

건강장수에 좋은 비타민 C

최근에 비타민 C의 약리작용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비타민 C는 여러가지 위장병 치료에 널리 쓰인다. 체내에서는 비타민 C 부족증이 나타나며 특히 무산통증, 두통, 근육통, 관절염, 당뇨병, 폐혈증과 여러 가지 피부병치로 등에 널리 쓰인다.

또한 여러가지 혈청성질병과 장티브스, 저리 그리고 폐결핵, 골관절결핵을 비롯한 만성감염증치로에도 쓰인다.

비타민 C는 식물성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C는 콩나물, 시금치, 가무베추, 감자, 사과 등에 가장 많다. 김치와 김치물에도

아름답고 더 황홀하게 피운 김정일화로 빛나게 장식할 일년에 넘쳐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고 성의있는 지성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지도국과 아레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접할 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군한 이들이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의 요구에 맞게 꽃배를 세로로 꾸민 과학기술적대우에 울려세우기 위한 열정은 백베로 커졌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조직하는 강습에도 적극 참가하여 재기술수준을 높이고 여러 단위를 앞선 경쟁력으로 따라부는 한편 온실종업원들이 즐겨찾은 곳이 바로 인민대학습당이었다.

이들은 인민대학습당에서 김정일화배와 관련한 여러가지 도수들의 열심히 워면서 자기 도시의 실정에 맞게 꽃의 원종특색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도 부단히 탐구도입함으로 불멸의 꽃 만발한 훌륭한 전시대를 펼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

절세위인의 숭고한 덕망, 무한대한 포용력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때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호소에 집합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새해 공동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입장이다.

새해공동사설에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애국애족의 의지가 뜨겁게 나타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면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하며 일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일 민족의 불타는 열의가 온 강토에 차넘치고있는 지금 우리 겨레는 숭고한 통일애국의지를 안시고 탁월한 령도와 숭고한 덕망, 애국애족의 헌신으로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격정속에 돌이켜보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큰 소원, 더 큰 과제는 없었다.

하기에 일찌기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으로 된다는 심오한 철리를

밝히고 애국애족의 따뜻한 손길로 은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언제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겨레를 품어 안아 하나로 단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오셨다. 소속과 정견, 신앙의 차이와 과거를 불문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애국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손잡고나가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지이다.

이느해 8월 어느날이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였다.

자애로운 눈길로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조신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려면 앞으로는 어려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가야 한다고, 모든 일꾼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오늘의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사명담아, 믿음담아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이란 사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가적인 근정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나갈것이다. 지난해 민족애에 불어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관용으로 대하며 그와 단결할것이다. 그리고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떨어져나가지 말고 일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랐다.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이 얼마나 가슴뜨거운 선언인가.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열의 고통을 후대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줄수 없다는 철의 의지를 지니고계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결연한 의지를 안시고 이때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 계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수하시려는 장군님의 투철한 통일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가.

애국을 지향하여 통일위업에 나서는 모든 정당, 단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합해나갈것이다. 민족적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적인 근정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나갈것이다. 지난해 민족애에 불어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관용으로 대하며 그와 단결할것이다. 그리고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떨어져나가지 말고 일꾼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랐다.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로 높이 평가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로작들에서 밝히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사상이고 뜻이다.

삼천리강토를 통째로 떠안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도량과 넓은 포용력은 마침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라는 격동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정경 그것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겨레를 넓은 품에 안아 자주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덕망과 애국의 결단기 빛나는 결실이었다.

세상은 보았다. 은 민족이 심장으로 느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광복정치가 얼마나 거대한 사변을 안아오는가.

세기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위인적정품에서 우리 겨레는 고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하늘같은 덕망과 바다같은 포용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대업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 땅우에 통일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선다는 것을.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은 민족을 매혹시키는 절세위인의 덕망과 포용력을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수놓아가시는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시다.

본사기자 김정옥

조선의 봄을 맞아 민족의 봄을 열어가는 민족의 태양

2월의 봄을 맞이한 남북겨레의 생각은 떠나없이 깊어지고 가슴가슴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조선의 봄을 안아 오신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강국의 앞날은 양양하다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것이 2월의 봄을 맞는 남북겨레의 가슴속에 굳게 각인된 신념인것이다.

2월의 봄을 맞이한 환희와 격정으로 넘쳐 주도한 한 교원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월의 봄을 무심히 생각하지 말라. 이 봄은 계절에 앞서 마음속에 먼저 찾아오고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조국의 제일단애에 있는 제주도의 한산애에 봄이 먼저 온다고 하였지만 2월의 봄은 백두산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력사의 2월에 백두산 밀영에서 조선의 봄을 안시고 탄생하시였다.》

2월의 봄맞이 회회장은 《백두산에서 광명성 높이 솟아 그 불바위 아래에 양양한 미래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존엄은 바로 2월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2월의 봄맞이 회회장은 《백두산에서 광명성 높이 솟아 그 불바위 아래에 양양한 미래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존엄은 바로 2월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2월의 봄맞이 회회장은 《백두산에서 광명성 높이 솟아 그 불바위 아래에 양양한 미래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존엄은 바로 2월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자기가 쓴 글에서 수만많은 민족사를 돌이켜볼수록 절세의 위인을 높이 받들어모신 2월의 참뜻이 뜨겁게 느껴진다 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신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2월의 봄이 있어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은 다가오고 주체의 봄과 함께 무궁번영의 새시대도 펼쳐지게 될것임을 굳게 믿고있는 우리 민족은 열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열히 2월의 봄을 노래할것이다.》

그의 이 글에는 경사스러운 2월의 봄이 있어 무궁번영할 민족의 봄이 태동하는것이며 자주통일의 새봄을 맞이하고 그 시각도 멀지 않았다는 굳은 신념과 락관이 한껏 어려 있었다.

서울의 주민 홍일수는 《백두산장군님을 안아온 력사의 불날과 더불어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위대한 김정일강성대국의 장항한 कै일이 소리로 울리고있다.》고 격조높이 예뻐하며 태양회 회원 강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어 《김정일시대의 아침이 밝았으며 그 앞날은 휘황찬란하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남태평양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러한 위인칭송의 소리는 우리 겨레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자주적존엄을 빛내이는 길은 오직 위대한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그의 조국통일령도를 적극 받들어나가는 데 있다는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오늘 남조선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호모와 칭송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으며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뜻깊은 2월의 봄을 맞이할 때면 백두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겨레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환호성으로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장으로 우러러 받드는 남북동포들의 순결한 마음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송사가 되어 끝없이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서울 관악구의 한 곳에서 열린 2. 16경축의 밤》 모임에서 2. 16동지회 회원들은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함께 《백두산찬가》, 《2월의 봄빛》, 《화진포의 해당화》, 《관문경의 흰 안개》, 《그 품에서 북라 하리라》 등 많은 위인찬가를 부르고 자기들의 심정이 담긴 자작시들을 읊으면서 경축의 밤을 보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새별회 회원들 역시 노래, 시마당을 펼치고 《우리는 해빛을 안고 산다》, 《서울거리에 피어낸 김정일화》, 《기다림나무》, 《전주지랑》,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하늘》, 《장군은 이긴다》 등 여러편의 노래와 시들을 발표하며 호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뜻깊은 2월의 봄을 맞이한 오늘 남녘의 민심은 조선의 봄을 안아온 민족의 태양 경애하는 장군님께 순경도 락패도 달고 그의 이념적명령명도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불타고있다.

본사기자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에서 김정일화전시회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김정일화 전시회가 12일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최후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총련합회 일꾼들, 재중동포들, 심양주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최후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의장을 비롯한 일꾼들과 재중동포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와 총영사관직원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중국의 판계부문 일꾼들이 여가 초대를 하였다.

먼저 경축보고회가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전체 재중동포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재중동포들 경축행사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에 떠날수록 태양의 꽃 김정일화라는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할것이라고 그들은 피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불멸의 꽃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러한 경축행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열려온다.

이날 2. 16경축 예술공연 및 도선전시회,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빠른 속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폭설고해 확대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동해안일대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4일까지만 하여도 남조선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 비닐집 460여동이 무너지고 9정보

대화거부책동의 필연적산물

남조선에 진행된 북남군사실무회담이 진행될것은 지금껏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언행을 놓고볼 때 필연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선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대화제안에 대해 만나보지도 않고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망동을 부리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대화제안에 《공식화 제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둘러대고 《정치공세》나, 《위장평화공세》나 하며 상대를 모독하였다. 그들은 《진정성》은 헛개기와 《천안》호사건,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실천적조치를 의미한다고 떠들며 그것이 우선이라고 억울하게 대외국방부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우위국방부를 열지 않겠다.》고 뻔대었다. 한마디로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진정성》이라는 간판밑에 저들이 지금껏 추추해온 불온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구를 썼다.

남조선당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문제들로 말하면 북남관계파괴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 파국에 처한 북남관

평양민 흥소학교 교원 리룡실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평양민 흥소학교에 들어선날 리룡실동무는 《첫 발자취를 떼다》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다. 그 일기와 더불어 보람찬 고판에서의 생활이 흘러갔다.

그는 늘 일기장을 펼치고 동생들을 벌리고 전사의 신념과 망심은 어찌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였다.

교정에 들어설 때면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령도를 전하는 현지지도로식비로 향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 날것들이 민주주의이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기장과 마주하였다.

원산지 상자로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평양민 흥소학교 교원 리룡실동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평양민 흥소학교에 들어선날 리룡실동무는 《첫 발자취를 떼다》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다. 그 일기와 더불어 보람찬 고판에서의 생활이 흘러갔다.

그는 늘 일기장을 펼치고 동생들을 벌리고 전사의 신념과 망심은 어찌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였다.

교정에 들어설 때면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령도를 전하는 현지지도로식비로 향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 날것들이 민주주의이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기장과 마주하였다.

원산지 상자로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대교조선군을 힘차게 떠밀어준 현장의료봉사활동

보건성아래 치료예방부문의 의료일꾼들이 총공격전의 기상세차 나래치는 중요전투장소에서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힘차게 벌려 대교조선군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달동안 전국의 20여개의 치료예방기관에서 수백명의 의료일꾼들이 30여개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수만명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진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난 기간 현장의료봉사활동을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해온 보건성에서는 올해에도 이 사

들은 부부초음파진단기와 심전계를 비롯한 수십종에 달하는 의료설비들과 의약품들을 가지고가나 1만 수천명에 대한 검진을 진행하였으면 1천여명에 대한 치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평양방직공장에 나간 김만유 병원 현장치료대원들의 성의있는 치료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자기의 초소를 떠나지 않고 1월 계획수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방직종합직장 김복실장자들이 비롯한 군인의 지방산업공장 노동자들에게 대한 현장검진을 진행하였으면 앞으로 기전단체를 인민병원에 세워줌으로써 내성들이 보다 건강한 몸으로 일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함경북도 인민병원의 현장치료대원들은 금속공업부문의 제



실속있게 운영되는 분과의 날

북동군 북동중학교에서 분과의 날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다.

학교에서는 분과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분과의 날운영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교육경험토론회와 보충수업, 교수경연에 자주 조직하여 교원들의 경쟁심과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사회분과에서 분과의 날운영을 잘하고있다. 오랜 교원들의 실무경기도 진행하고 시범수업도 조직하여 분과의 날이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변함없이 걸는 길

평양민 흥소학교 교원 리룡실동무 그의 하루일과는 이렇게 흘러갔다.

가정을 이루고 새 자식의 어머니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일기장은 나날이 무피가 두터워졌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평양민 흥소학교에 들어선날 리룡실동무는 《첫 발자취를 떼다》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다. 그 일기와 더불어 보람찬 고판에서의 생활이 흘러갔다.

그는 늘 일기장을 펼치고 동생들을 벌리고 전사의 신념과 망심은 어찌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였다.

교정에 들어설 때면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령도를 전하는 현지지도로식비로 향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 날것들이 민주주의이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기장과 마주하였다.

원산지 상자로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평양민 흥소학교 교원 리룡실동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이어지는 평양민 흥소학교에 들어선날 리룡실동무는 《첫 발자취를 떼다》라는 제목의 일기를 썼다. 그 일기와 더불어 보람찬 고판에서의 생활이 흘러갔다.

그는 늘 일기장을 펼치고 동생들을 벌리고 전사의 신념과 망심은 어찌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하였다.

교정에 들어설 때면 그는 학생들을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령도를 전하는 현지지도로식비로 향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그 날것들이 민주주의이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기장과 마주하였다.

원산지 상자로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